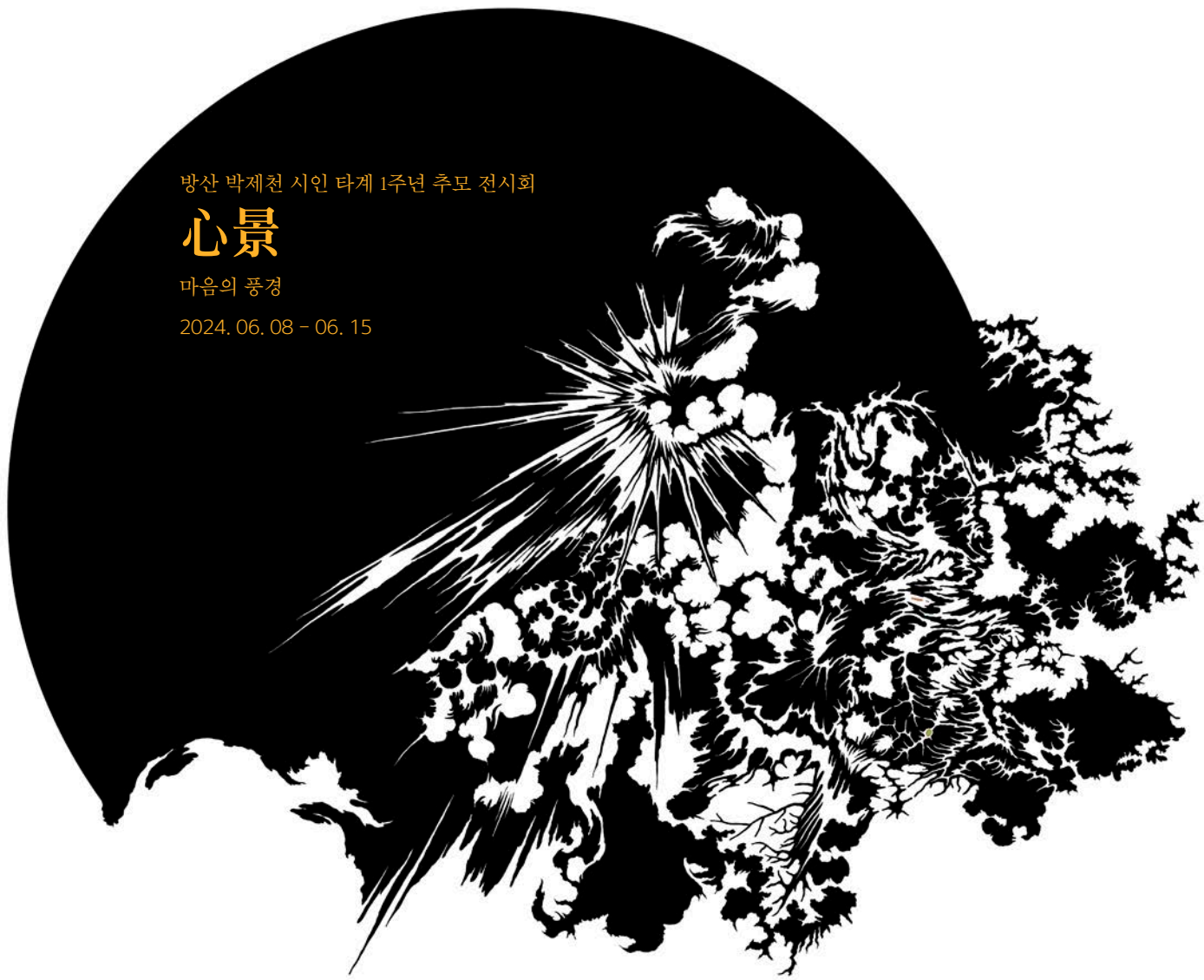


방산 박제전 시인 타계 1주년 추모 전시회

心景

마음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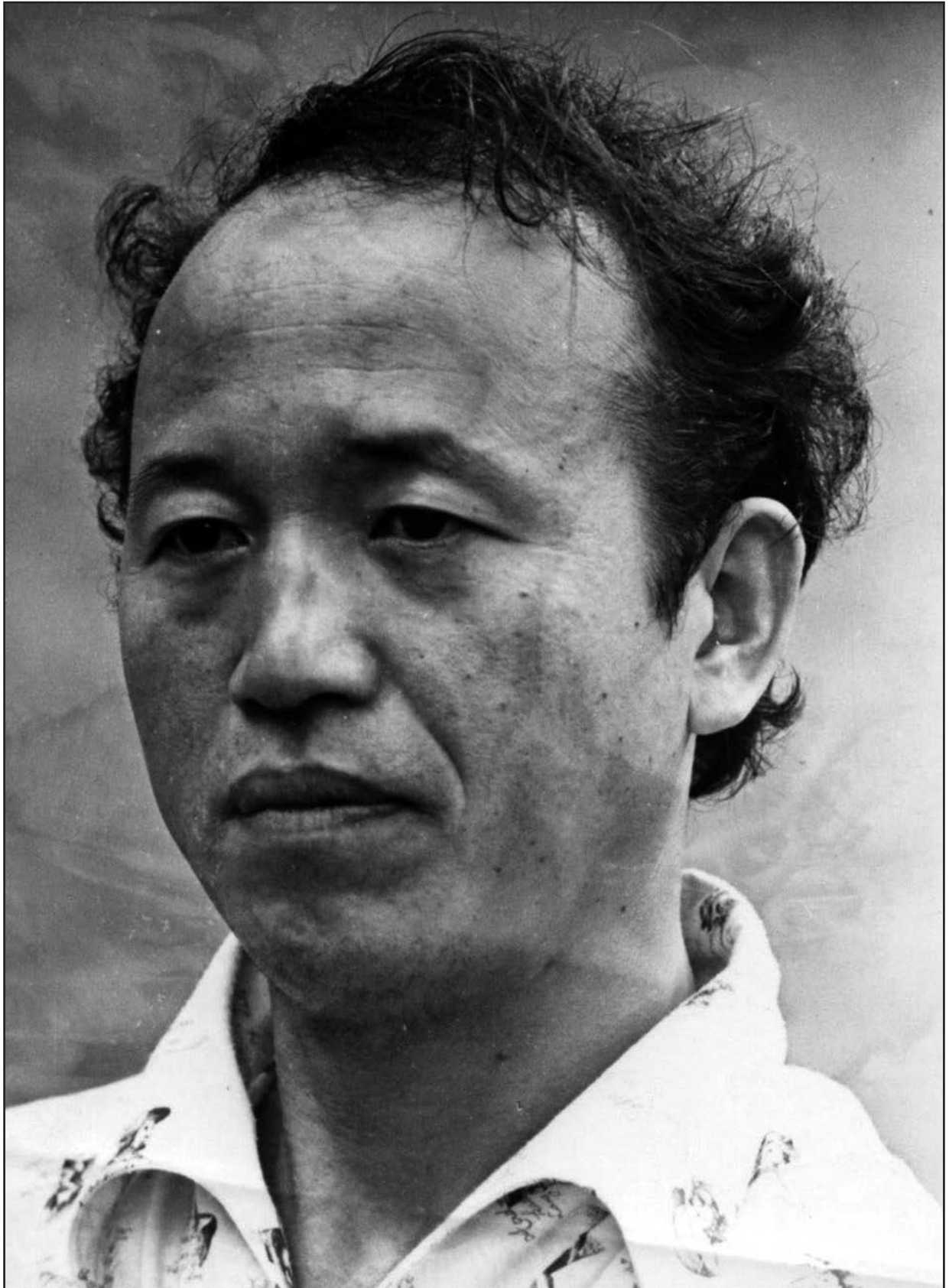
2024. 06. 08 - 06. 15



오프닝: 6월 8일 토요일 저녁 5시

추모공연: 이두성 6월 8일 토요일 저녁 6시, 6월 10일 월요일 저녁 6시

인사동 코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길 7 / 전화: 02 737 7977



박제천 시인 1945. 3. 23 - 2023. 6.10

심경心景 - 마음의 풍경

시화전: 장자시집

오프닝: 6월 8일 토요일 저녁 5시

전시기간: 6월 8일 토요일 부터 6월 15일 토요일 까지

시간: 오전 11시 부터 저녁 6시 30분 까지

추모공연: 이두성 6월 8일 토요일 저녁 6시, 6월 10일 월요일 저녁 6시

문의: 02 737 7977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길 7 인사동 코트 해봉

이 전시는 지난해 별세한 박제천시인을 추모하는 전시입니다.

고인의 시와 살아생전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고인의 미발간시집 “장자시집”을 주제로 고인의 아들 박진호 작가가 그린 그림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6월 8일, 전시회 오프닝과 6월 10일 고인의 기일에는 이두성 배우의 추모공연이 펼쳐집니다.

박제천시인은 우리나라 현대시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신석초시인의 추천으로 1966년 등단한 후, 1975년 제1시집 장자시로 시단에 강한 인상을 주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23년 타계시 까지 끊임없는 창작활동을 통해 17권의 시집과 8권의 시선집, 그리고 다양한 시 창작에 관한 저서를 펴내어 고인의 지칠줄 모르는 창작열과 끊임없는 시적 실험들은 후배 시인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박제천시인의 장자시집 서시를 소개합니다

서시

장자는 어느날 나비가 되고
나비는 어느날 장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나비가 된 장자는 별유천지를 맞보고
장자가 된 나비는 지옥을 떠돌았다는
장조의 후기

일배일배부일배

누가 물화物化를 끄적이는가

이백은 술통을 두드리다 고래가 되고
방산자는 잡화꽃에 취해 비인간이 되었다.

전시제목으로 삼은 심경은 마음의 풍경, 혹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박진호 작가는 장자시집에서 보이는 풍경을 폐곡선의 형태로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전시에 선보이는 그림들은 모두 동그라미가 일그러진 모양입니다.

추모공연으로는 이두성 배우의 아버지를 주제로 한 마임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두성 배우 소개

이두성 배우는 그동안 배우고 체험하며 연구해온 마임 장르를 통해 자신의 몸을 보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공유합니다. 아름다움 안에서 타자와 함께 자기실현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대표작 - 새·새·새, 허수아비, 이불, 심청, 달과 해에 관한 오래된 기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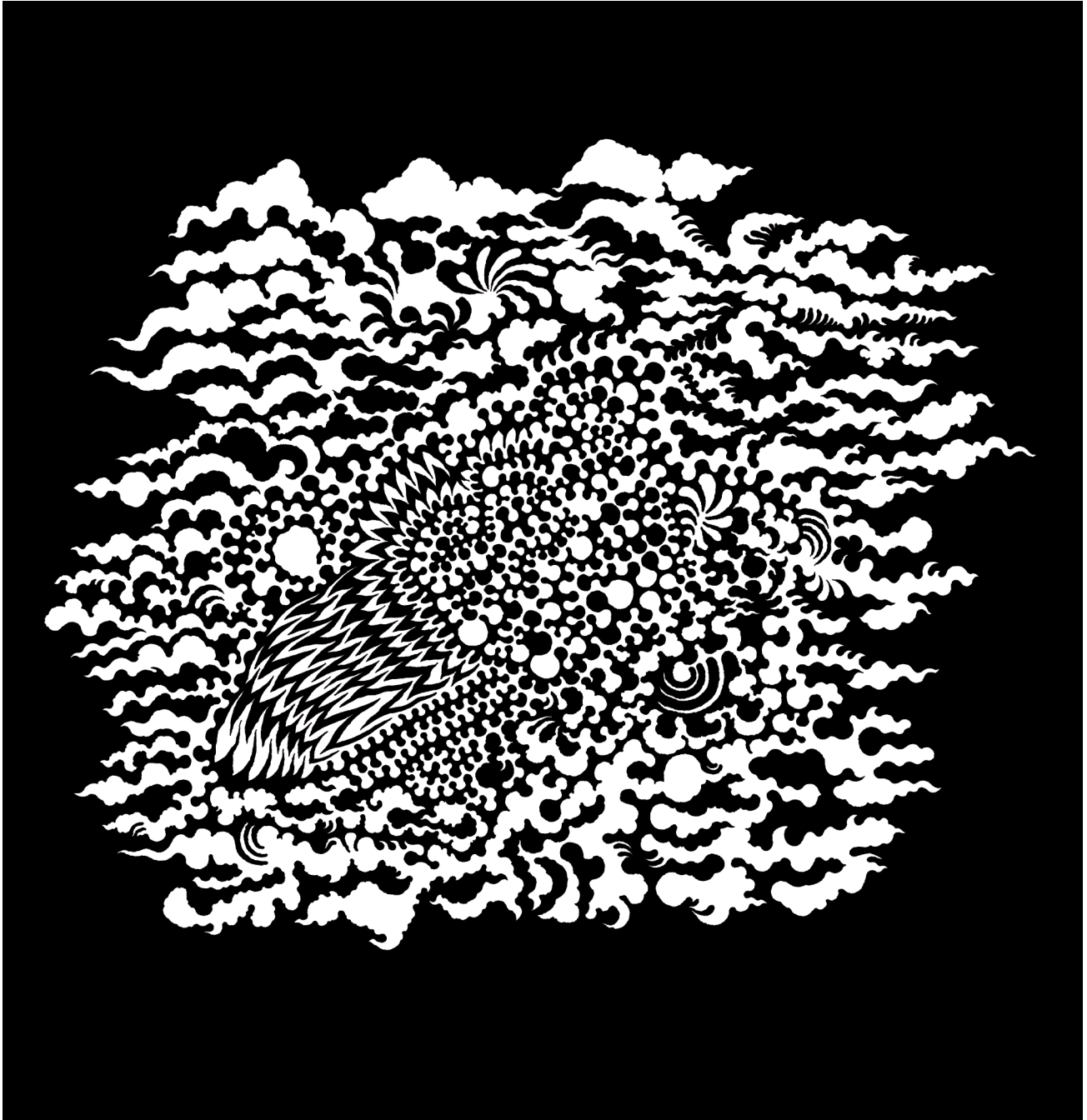
현재 공연창작연구소 이슬길 대표 / 한예중 연극원 객원교수 / 한국연극치료학회 이사

붕새(鵬)의 꿈길 여행

그 처음, 하늘과 땅 사이
북명(北冥)의 어둠 속에서 깨어나니, 알이었다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없는 알들이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어둠의 크기만 해도 몇천 리는 되는 것 같았다
누군가 이때의 우리를 곤(鯁)이라 이름 지어 부르고 있었다
북명의 어둠은 대양의 물결이었다
우리를 하나의 생명체로 키우는 자궁의 양수였다
우리는 이윽고 하나가 되어, 새의 형태를 갖추었다
비록 새라 하지만 우리는 어둠의 크기만큼 자라서
날개를 퍼면 온 하늘에 구름처럼 가득 찼다
어둠은 우리를 가리켜 붕새라 이름 짓고,
남명(南冥)으로 갈 때까지 키워준 자양이었다
드디어, 남명으로 길을 떠나야 했다
물을 쳐올리되, 그 높이가 3천 리나 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나 올라가서
여섯 달 동안 거센 바람을 안고 날아야 했다
듣건대, 북명에서 남명으로 가는 길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은하계1에서 시작해
은하계10으로 가는 길처럼 멀다고 한다
그래서, 붕새는 아직도 저 하늘 어둠 속을 날고 있다.

北冥有魚，其名爲鯁，鯁之大，不知其幾千里也，化而爲鳥，其名爲鵬，
鵬之背，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其翼若垂天之雲，是鳥也，海運則將徙於南冥，南冥者天池也。

方以智注:鯁本小魚之名，莊子用爲大魚之名
爾雅 釋魚注:鯁魚子
段玉裁注:魚子未生者鯁



봉새(鵬)의 꿈길 여행 | 한지에 프린트 | 50cm x 50cm

심재좌망心齋坐忘

바다와 한 몸인 하늘에 걸개그림이 펼쳐지고,
새벽노을 바탕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은하계가 한꺼번에 떠오르고
그렇게 내 안의 은하계에 꽃밭이 펼쳐지는,
지구별에 오도카니 앉은 내가 꽃이 되는,

어느 날
혼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머물 때,
눈이 내 안으로 휘몰아칠 때,
내 안의 나뭇가지가 눈보라에 뚝뚝 부러질 때,
내 안에 얼음 얼어 반짝이듯
그렇게 우주가 내 몸에 문신으로 피어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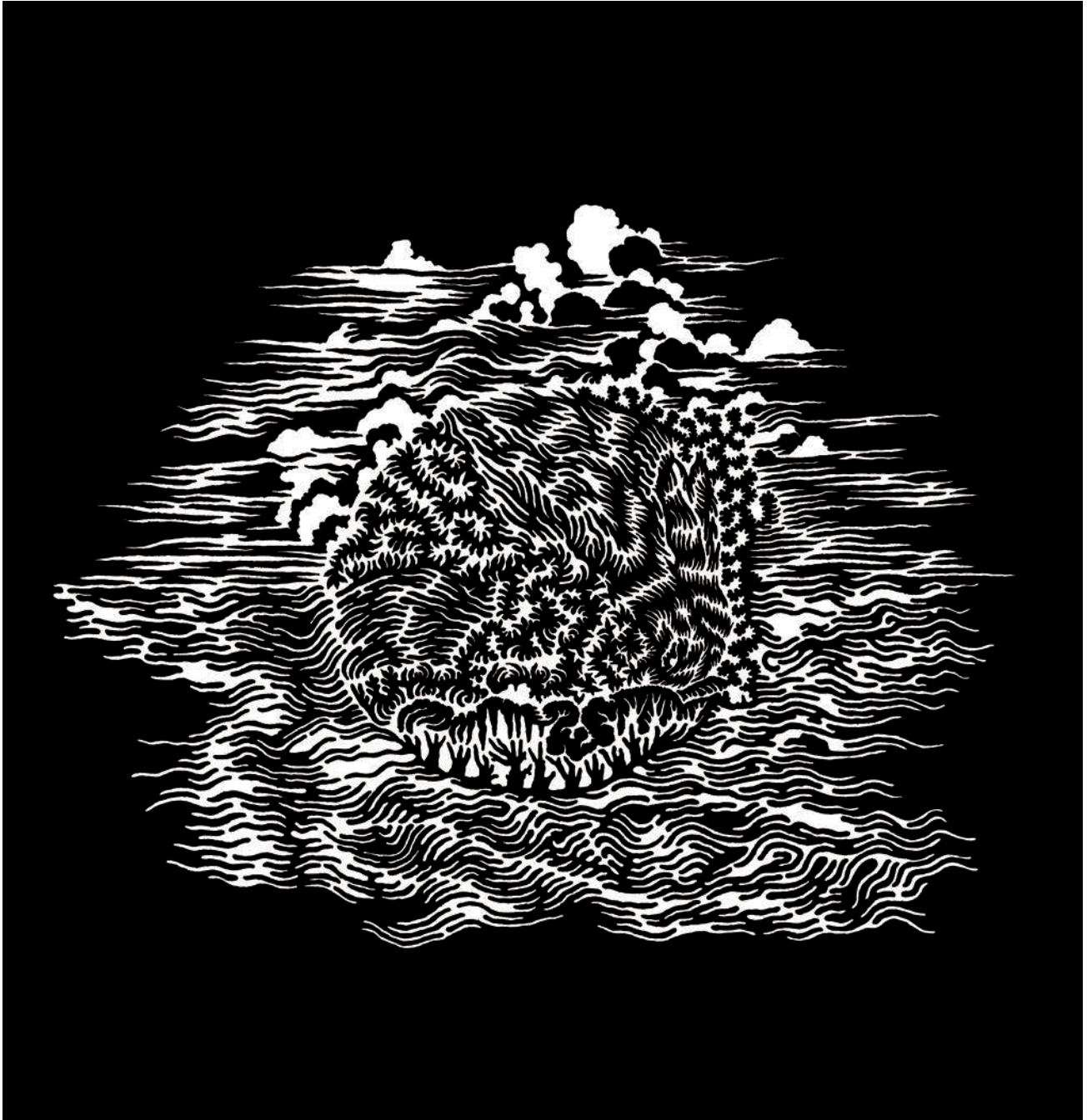
토끼가 눈을 뜨는 시간,
묘시(卯時)에 눈을 뜨자,
그렇게 찾아온 남곽자기(南郭子綦)를 만났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있음이고 없음이고
그 어느 것도 아닐 때
그렇게 내가 있거나 없어도
그렇게 만물과 내가 하나일 뿐이었다.

南郭子綦隱机而坐, 仰天而嘘, 荅焉似喪其耦, 顏成子游立侍乎前,
曰, 何居乎, 形固可使如槁木, 而心固可使如死灰乎, 今之隱机者,
非昔之隱几者也.

雖然, 請嘗言之.

有始也者, 有未始有始也者, 有未始有夫未始, 有始也者, 有有也者,
有无也者, 有未始有无也者, 有未始有夫未始有无也者, 俄而无矣,
而未知有无之果孰有, 孰无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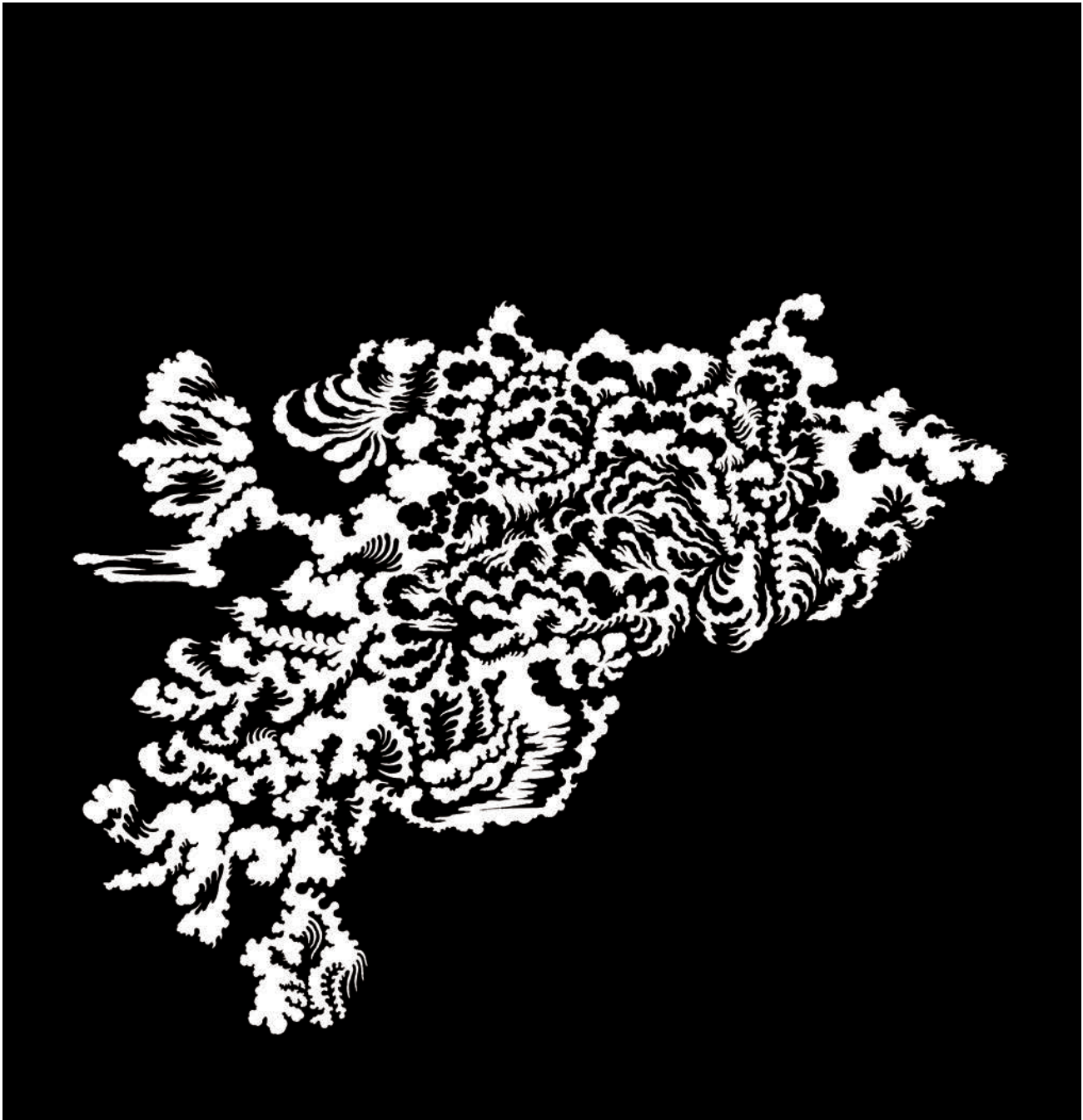


심재좌망心齋坐忘 | 한지에 프린트 | 50cm x 50cm

진인

누가 진인인가
남이 주는 건 사소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일해서 성공해도 뽐내지 않고 억지로 일을 꾸미지 않는다
누가 진인인가
높이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으며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누가 진인인가
잠자되 꿈꾸지 않고, 깨어나서는 걱정거리가 없다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숨 쉬되 깊이깊이 길게 쉬었다
사람들아,
덕이 충만하면 절로 표가 나듯,
아침자도 목소리부터 지어내야 하듯,
욕심에 빠지면 천리를 거슬린다오.

何謂真人, 古之真人, 不逆寡, 不雄成, 不護士.
若然者, 過而弗悔, 當而不自得也.
若然者, 登高不慄, 入水不濡, 入火不熱.
是知之能登假於道也若此.
古之真人, 其寢不夢, 其覺無憂, 其食不甘, 其息深深.
真人之息以踵, 衆人之息以喉.
屈服者, 其嗑言若哇, 其耆欲深者, 其天機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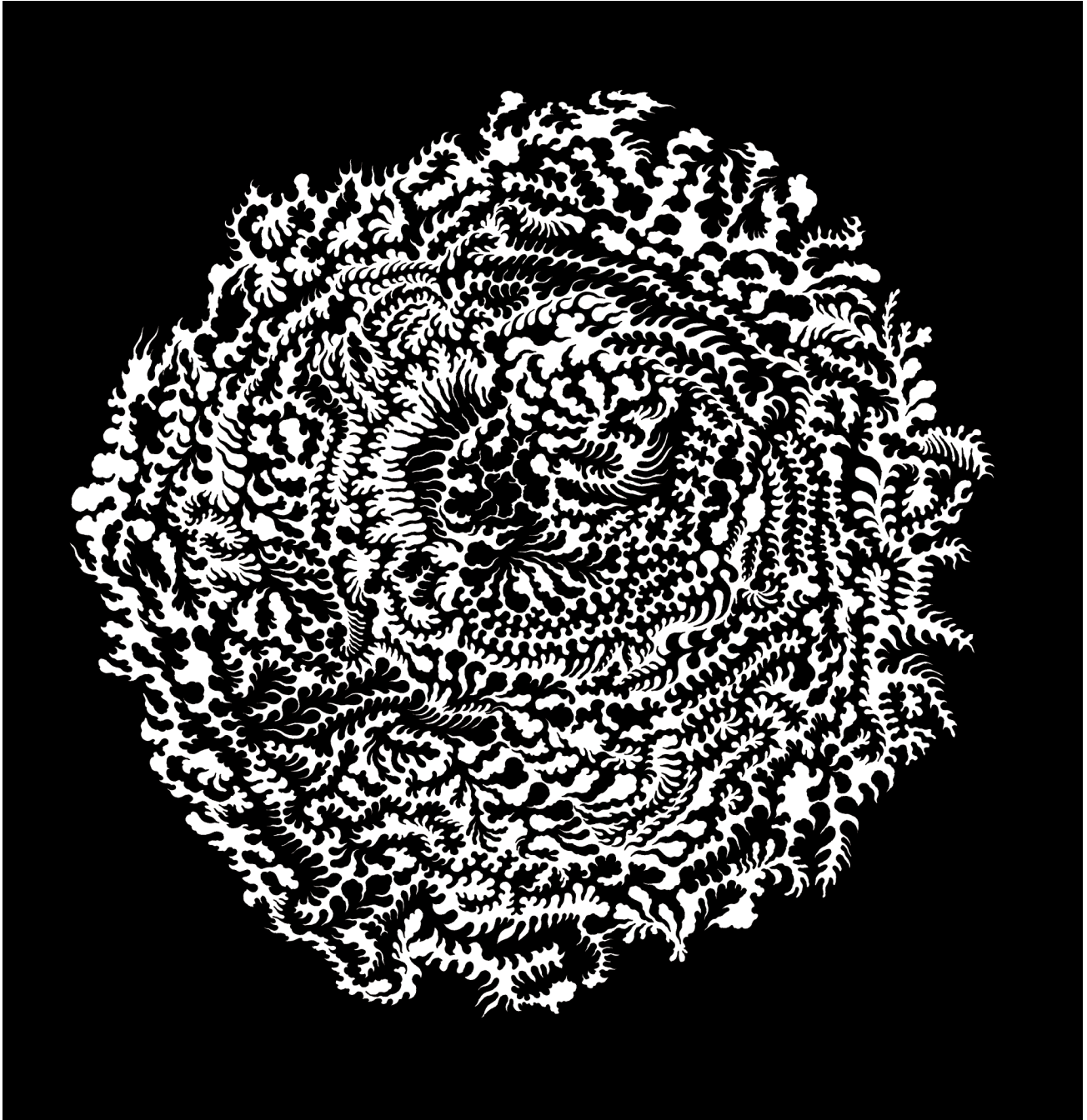


진인 | 한지에 프린트 | 50cm x 50cm

하늘과 하나가 되는 법

나는 진짜 나일까
꿈에 새가 되어 하늘을 날 때의 나는 누구일까
물고기가 되어 물속을 노닐 때의 나는 누구일까.
지금 우리는 깨어 있는 걸까, 꿈꾸는 걸까
알 수 없으라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꿈속을 헤매고 다녔으니,
꿈꾸는 일조차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저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한 점 구름,
저 하늘 속 하늘이 된다네.

且汝夢爲鳥而厲乎天, 夢爲魚而沒於淵, 不識今之言者, 其覺者乎, 夢者乎, 造適不及笑, 獻笑不及排, 安排而去化, 乃入於寥天一.



하늘과 하나가 되는 법 | 한지에 프린트 | 50cm x 50cm

시인 박제천이 도달한 무위無爲의 시세계

김용범(시인, 한양대 교수)

박제천 시인이 최근 작업한 『장자시집』 우화시 1부의 20편 묶음을 읽었다. 시를 읽는 내내 나는 시인 박제천에게 장자(莊子)는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박제천에게는 이미 1970년 『현대문학』에 전재된 연작시 33편 〈장자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장자』라는 경전 텍스트를 인유(引喻, Allusion)라는 수사법으로 발췌 없이 통째로 끌어 들여 33편 연작시의 바탕에 깔았다.

그리고 이 연작시 33편의 〈장자시〉는 당대 문단에 상당히 강한 충격을 가한 작품이었다. 띄어쓰기 없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그 시들은 일종의 전율 같은 것이었다. 서사(敍事)를 주축으로 하는 산문시가 아니고 산문형의 파격이 주는 형식상의 충격과 함께 행과 연 가르기를 무시하고 행과 연, 시어와 시어의 적정 배치에서 유도되는 리듬 운율 등의 멜로포에아적 요소를 깔아뭉개고 펼쳐지는 현란한 호흡, 『장자시』 연작이 보여준 최대의 성과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산문형으로 발표된 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제천의 장자시는 그런 유형의 작품들이나 작업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다. 작품 한 편을 골라 임의로 행과 연을 갈라 본다면, 〈장자시〉 33편의 그 작품 하나하나는 어김없이 전통적 서정시의 표현 양식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왜 그런 형식을 취했을까. 독자들 입장에서나 평론가들 입장에서 ‘실험적 형식’ 또는 ‘파격’이란 말 말고는 문학적으로 더 이상 파악하고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은 현상이다. 소위 브라운 운동(Brownian motion)이 그것인데, 이는 1827년 스코틀랜드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이 발견한, 액체나 기체 속에서 미소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분자의 움직임을 미립자(微粒子, corpuscular) 운동이라고 한다.

〈장자시〉에서 시인 박제천이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시어와 시어의 행과 연을 없앴으로써 펼쳐진 현란한 레토릭은 그것을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의미를 심은 시어와 시어의 간격을 없애고 시어와 시어를 의도적 충돌시킴으로써 ‘언어의 미립자’ 운동을 작동시킨 것이다.

오브제의 이미지, 그 잔상(殘像)이 사라지기 전 또 다른 오브제와 불규칙하게 충돌하면서 빛어지는 제3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시인 박제천은 간단하게 창출한 것이다, 이것이 1970년 〈장자시〉가 획득한 레토릭이다. 의도적이지도 인위적이고 작위적인(artificial) 기법이다. 그리하여 시인 박제천 자신은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작위적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해 언어의 미립자 운동을 발생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한국 현대시 표현 양식을 창출해 낸 것이다.

그리고 그후 50년이 지나 다시 〈장자〉에 천착하고 있다. 50년만에 그가 돌아와 마주친 장자는 어떤 것일까? 20편의 작품을 심독(心讀)하며 나는 문득 50년 전 〈장자시〉 중의 한 편을 떠올렸다.

漢籍갈피에서날리는智慧의숨소리

깨어있는나의안에서해를길어올리는두레박소리

출렁이는물속의아픔이손가락끝에서얼굴을드러내네

거슬러오를수없는時代

내여원肋骨의틈에서해를밀어올리는莊子

그의바람이山갈치를떨어뜨리네山갈치가퍼덕이고햇빛은

槍처럼그것의등을꺾어바다로도도던질것이네.

—「장자시莊子詩 그 열 하나」 전문

50년 전 그가 독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다. 『박제천 전집』 1차분(전5권)을 낼 때 나는 전집의 총설을 쓰면서 그가 ‘독살’을 만들어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예견한 적이 있다.

시집 『장자시』에서 그는 ‘한적(漢籍)갈피에서날리는지혜(智慧)의숨소리’를 들었고, ‘창(槍)처럼그것의등을꺾어바다로도도던질것이네’라고 호언장담했다.

나는 50년 만에 다시 한번 그의 독살에 걸려든 장자를 보았다. 50년 전 그의 시가 경전의 전거를 바탕에 깔고 작위적 미립자 운동을 야기한 인유의 세계였다면 50년 뒤 그가 만난 장자는 그 속에서 찾아낸 지혜의 숨소리였던 것이다. 그중 한편을 골라 본다.

장자와 나비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네 삶의 멩에를 꿈속에 두고 온 것 같네

우리네 사는 세상이 꿈속인가 꿈속이 우리네 삶인가
길어야 백년을 사는 사람의 일생,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끝나는 하루살이의 일생,
8백년을 한 해로 삼는 대춘나무의 일생이나
모두가 한 삶일세
즐거움과 괴로움, 삶과 죽음이 어찌 다른가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도토리 4개가
기분 나쁜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한즉 희희낙락했다네
고양이의 빛깔이 검은 하얗든,
귀를 잘 잡는 고양이 가장 좋은 고양이,
우리네 삶도 백묘 흑묘 그 어느 쪽이라네.

勞神明爲一，而不知其同也，謂之朝三。何謂朝三，狙公賦茅曰，朝三而暮四，衆狙皆怒曰，然則朝四而暮三，衆狙皆悅。
-「조삼모사朝三暮四 *제2편 齊物論 3」 전문

이 시를 찬찬히 읽으면 독자를 초등학교 학생 정도로 보고 그냥 담담하게 진술하는 투다. 현란한 레토릭도 없고, 언어와 언어가 충돌하며 일으키는 스펙트럼도 없다. 게다가 현토(懸吐)도 없는 원문이 달려 있다. 누가 읽으라는 것인가? 한자가 아니라 한문에 달관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읽기 어려운 『장자』 원전을 시의 말미에 달은 의도는 무엇일까? 이번 시작업의 백미는 여기에 있다. 그는 원전을 이미지로 처리한 것이다. 읽으란 이야기가 아니다. 어차피 읽어서도 요체를 해득하지 못할 것을 전제해서 원문을 그림처럼 붙여 놓은 것이다. 현대문학 비평을 전공한 평론가들이라면 응당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이란 이론을 적용하고 예시할 좋은 텍스트가 생긴 셈이지만 이것은 노회(老獪)한 원로 시인의 트릭이다. 그는 아무런 의도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원전의 지혜를 담담한 어조로 보여 주고 있다. 작위(作爲)가 아니라 무위(無爲)이고 그의 감성으로 포착된 '지혜(智慧)의 숨소리'를 들려주는 것 뿐이다. 독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평론가의 평가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다. 레토릭도 버리고 경전적 해석도 요구하지 않는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爲學日益，爲道日損。損之又損，以至於無爲。無爲而無不爲。
학문을 하는 자는 날마다 더하고, 도를 들은 이는 날마다 덜어낸다. 덜어내고 덜어내 억지로 함이 없어야 무위에 이른다.
-『노자 도덕경』 제48장

이 말씀에 기대어 또 한 편의 시를 골라 본다.

사람이 이세상에 태어난 건 때를 만남이듯
이세상을 떠나는 건 명이 다했기 때문이라네
죽어 슬프지도 않고 산다 하여 기쁠 것도 없네

한번 빌린 몸, 그 몸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자유로운 세상으로 돌아갔네

노자가 죽었다 해서
늙은이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젊은이들은 아버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니
노자 역시 은연중에 바라던 바가 아닌가

노자를 도인이라 칭할 것도 없네
그 역시 허명을 즐겼으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네.

老聃死，秦失弔之，三號而出。
弟子曰：非夫子之友邪。
曰：然。然則弔焉若此，可乎。曰：然。始也吾以爲至人也，而今非也。向吾入而弔焉，有老者哭之，如哭其子。
少者哭之，如哭其母。彼其所以會之，必有不？言而言，不？哭而哭者。是遯天倍情，忘其所受，古者謂之遁天之刑。
適來，夫子時也，適去，夫子順也。安時而處順，哀樂不能入也，古者謂是帝之懸解。指窮於爲薪，火傳也，不知其盡也。
-「노자의 죽음 *제3편 養生主 3」 전문

그렇다면 인위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시인 박제천이 도달한 시의 세계는 어떤 나라일까?
활자화 되기 전의 시 20편을 읽으며 문득 나는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 주신 박목월 선생과 김종길 선생의 대답을 떠올렸다. 조금
장황하지만 두 분의 대답을 옮긴다.

김종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박 선생만큼 꾸준히 작품을 쓰시고, 사실은 자연스럽게 달라져 온 시인도 이 땅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난·기타』가 제가 보기에는 근래의 우리 시단의 주요한 수확의 하나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연대적으로 최근에 속하는 〈1〉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저는 「하관」이 큰 작품이라고 봅니다. 「하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계씨(季氏)가 돌아가신 건 언제였지요?

박목월: 제작년 12월입니다.

김종길: 이 작품은 계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곧 쓰신 것입니까?

박목월: 아닙니다. 1년 동안 거의 아우의 죽음을 잊고 있다가, 꿈에 아우가 자주 나타나더군요. 그 1년 동안 한 줄씩 되어 가곤 있었습니다만……. 1년쯤 시간이 흐르니까, 아우가 죽었을 때 받았던 날것대로의 슬픔이 가라앉고 아우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말짱게 그저 바라보일 뿐입니다. 그런 심경에서 시집 나올 무렵에 완결 지은 것입니다.

김종길: 우선 이 시에서는 수식어, 특히 형용사가 최소한으로 절약되어 있어요. 박 선생의 그전 시에 그렇게 많던 형용사가…….

박목월: 네, 수식어를 일부러 죽였지요. 제재나, 테마가 테마인 만큼 수식어가 많이 씌어지질 않더군요.

김종길: 수식어가 적어졌다는 것이 억센 어휘도 가리시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최근의 박 선생 시의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하관」을 예로 들면서) 감상이라곤 전혀 느낄 수가 없잖습니까? 하나의 서술입니다마는 어휘도 여간 선택적이 아니고, 뚜벅뚜벅 이렇게 얘기를 해 오다가, ‘이제 / 네 음성을 /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이라고 기실 아무것도 아닌 말인,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하고 맺음으로써 얼마만한 감동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까! 저승과 이승과의 거리가 유명(幽明)을 달리한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시나 인생의 가장 높은 것이 아니겠어요? 영어에서 ‘Great poetry’라는 말을 쓰는데, ‘대가시(大家詩)’라고나 번역할까요. 大家詩라는 것은 주로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시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깨달음’은 이 작품의 끝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3행 같은 건 시로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가 아닌가 합니다.

박목월: 이걸 굉장한 과찬이군요. 사실 ‘열매가 떨어지는 이야기’는 완전히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혹은 어느 無名이나 新人의 작품에서 그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김종길: 그러나 설사 이 구절은 그대로 누구의 것을 따오셨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의 문맥 가운데서였기에 이만큼 산 것입니다. 엘리엇도 남의 것을 빌려 오는 방식으로써 그 시인의 역량을 알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건 별문제가 되질 못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기의 열매는 뉴턴의 능금만큼이나 큰 물건이었습니다.

- 김종길,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6.

결론은 명료하다. 이로써 시인 박제천의 시는 ‘대가시(Great poetry)’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작위를 버린, 무위의 세계에 도착한 그의 시를 통해 소위 대가시란 무엇인가를 비로소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김용범(시인, 한양대 교수)
『문학과 창작』 2018년 여름호